

지장 보살이 주는 구원에 민중들 희망 걸어

<30> 구화산 김지장 스님과 비관경 거사

중국에서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비교적 늦은 당대(唐代)에 이르러서였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등에 따르면,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부축을 받아 과거의 오랜 고택(劫) 동안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고자 항하사(恒河沙)와 같이 발원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지옥이 텅 비지 않는다면 성불하지 않겠노라(地獄不空, 誓不成佛)”라는 언구로 대표되는 지장신앙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구화산에서 신라 왕자 출신인 김지장(金地藏) 스님의 행화(行化)라고 하겠다. 구화산에 지장도량이 형성되는 과정과 김지장 스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비관경(費冠卿) 거사가 원화(元和) 8년(813)에 찬술한 <구화산화성사기(九華山化城寺記)>(〈전당문〉 권694)이다. 이에 따르면, 지장 스님은 바로 “신라왕자로서 김씨의 근속으로, 목이 솟아 팔상이 기이하고 키가 7척(尺)에 달하며 힘이 장사였다. 출가해 바다를 건너 구화산에 이르

간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산이 울고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 무정(無情)도 감동했구나. 시적(示寂)에 있어 비구니 시자가 와서 미처 말하지 않았는데, 절에서 종을 울리니 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함(函)중에 결가부자(結跏趺坐)의 자세로 모시기를 3년이 지나서, 함을 열고 탑에 모시고자 하니, 얼굴이 살아계실 때와 같았고, 옮길 때 팔이 움직여 쇠사슬 움직이는 소리가 울렸다. 경전에 이르기를, 보살의 몸은 쇠사슬과 같아서 모든 뼈에서 울림이 난다고 했다. 그 탑이 세워진 땅은 마치 불타는 것과 같이 빛을 발해 원광(圓光)을 이루었다.”

이러한 묘사는 지장보살과 관련된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는 바와 상당히 일치해 지장 스님은 지장보살의 현신으로 추앙받게 됐다. 점차로 구화산은 지장보살도량으로 명성을 얻게 돼 중국의 4대 성지(聖地)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로부터 지장 스님에게 귀의한 거사들이 상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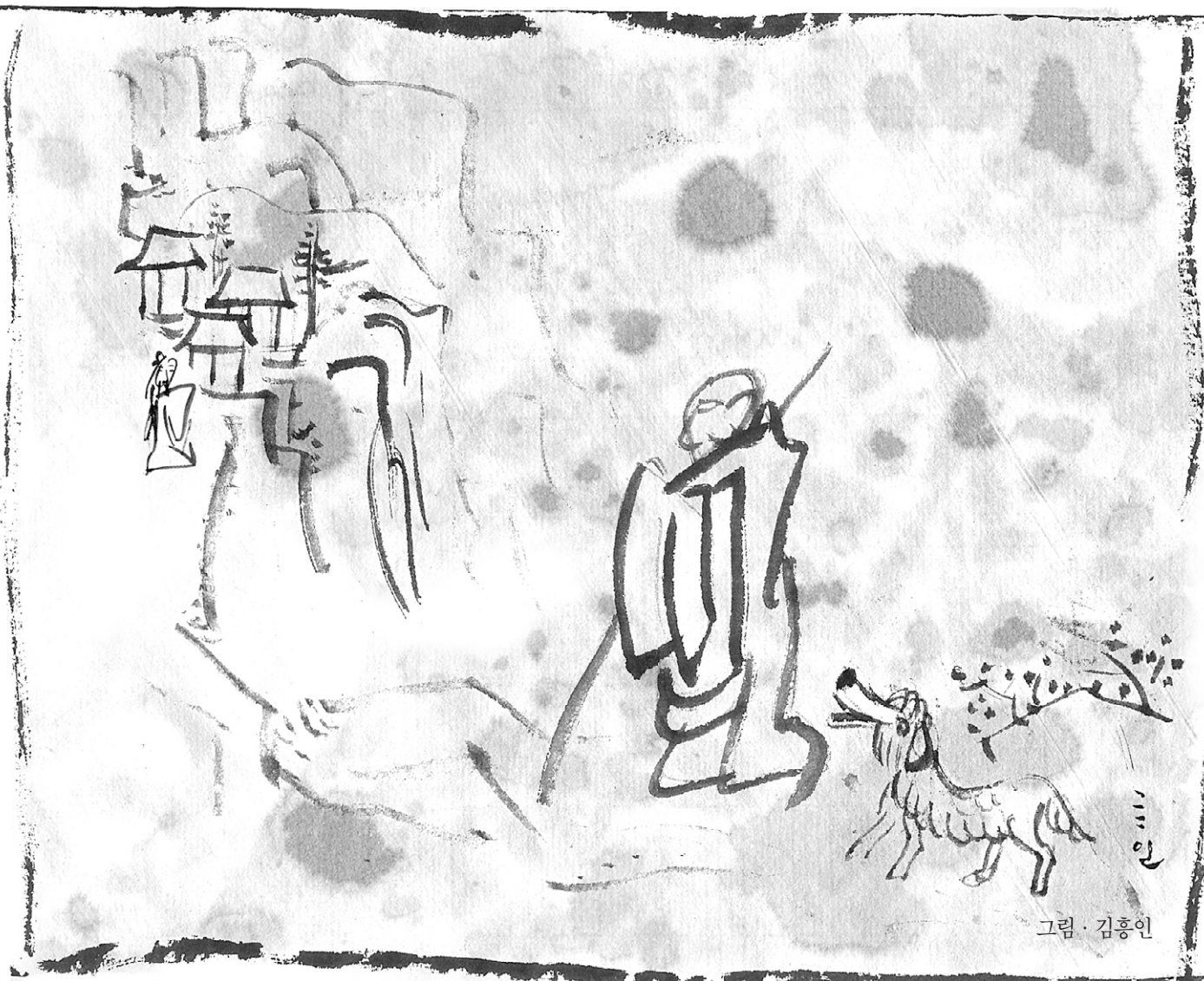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지장신앙 중국서 본격 일어난 계기는 지장 스님 ‘행화’ ‘구화산 화성사기’ 찬술한 비관경 거사 구화산서 수행

렀다”고 한다. 또한 이로부터 세속과 단절해 수행에만 전념했다. 지덕(至德) 초년(756)에 이르러 제갈절(諸葛節) 등이 구화산에 올라 지장 스님의 수행하는 모습에 감동 받아 보시를 해 땅을 매입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찰을 창건했다. 건중(建中) 초년(780)에 지주(池州) 태수 장엄전(張嚴典) 거사가 스님의 덕을 우려라 보시를 두둑게 해 사찰을 증건하고 옛 현관을 옮겨 안치했다. 이로부터 구화산의 지장도량은 널리 알려지게 됐고, 신라에서 명성이 퍼져 “본국에서 소문을 듣고 서로 바다를 건너왔는데 그들이 무리를 이루자, 대사는 식량이 없음을 걱정해 돌을 들어 흙을 파니, 그 색은 청백(靑白)으로 모래가 섞이지 않아 밀가루와 같았다. 여름에는 흙을 섞어 먹고, 겨울에는 옷으로 불을 아끼고,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발을 일구고 땀나무를 캐서 자급했다. 그 대중들은 법을 청해 식량으로 삼았고, 먹는 것으로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니 남방에서는 그들을 ‘고고중(枯槁眾)’이라고 칭하며 높이 우러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구화산화성사기>에는 지장 스님의 입적 당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사의 나이 99세, 정원(貞元) 10년(785) 여름, 홀연히 문도들에게 고별해

있었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구화산이 지장보살도량으로 형성됐음을 알게 한다.

<구화산화성사기>를 찬술한 비관경 거사에 대해서는 <전당문> <당척언(唐摭言)> 등에 아주 간략한 전기가 실려 있다. 거사의 자(字)는 자군(子軍)으로 지주(池州) 청양(淸陽, 현 安徽省 淸陽縣) 사람이다. 본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젊어서 출세하고자 10년 동안 집을 떠나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원화(元和) 2년(807)에 진사에 급제했다. 그러나 진사에 급제한 후 노모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고 급히 집으로 갔지만 이미 장례를 치른 뒤였다. 이에 거사는 3년을 수묘(守墓)한 후에 “관록은 바로 모친을 잘 모시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제 관록이 왜 필요하였는가!”라고 한탄하며 관직을 포기했다. 이로부터 구화산에 은둔해 수행에 힘썼다. 15년 후, 장경(長慶) 2년(822)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이행수(李行修)가 거사의 ‘효절(孝節)’이 뛰어난을 인정해 추천하자 목종(穆宗)황제는 거사에게 우슈유(右拾遺)의 높은 관직을 하사했으나, 거사는 끝내 거절하고 수행에만 전념하다가 임종 후에 구화산에 묻혔다. 거사는 비록 관직에 몸담은 적은 없지만, 황제가 우슈유의 관직을 제수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거사를 존중해

‘비슈유(費拾遺)’ ‘비정군(費征君)’으로 칭했다고 한다.

거사와 지장 스님은 동시대의 사람으로 <구화산화성사기>의 끝부분에 “어려서 듣고 본 바(幼所聞見)”를 “경건하게 기록한 것(謹而記之)”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에 따라 후인들이 “천추에 믿을 수 있는 사료(千秋信史)”라고 평가하고 있다. 찬경(贊寧)의 <송고승전> ‘감통편(感通篇)’의 김지장전에서도 역시 거사의 <구화산화성사기>를 인용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후대에 구화산이 지장도량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다양한 전설이 부가되고, 여러 가지 고사들이 삽입되게 된다.

중화민국 시기 출판된 <구화산지(九華山誌)>(上海國光印書局, 1930)에는 지장 스님의 출신은 신라의 왕실이며 성은 김이고 이름은 교각(喬覺)이라고 한다. 또한 24세, 당시 당 고종 영휘(永徽) 4년(653)에 삭발하고, 흰 개인 선경(善卿)을 데리고 바다를 항해해 중국으로 건너와 청양 구화산에 이르렀다.

산에서 75년을 단좌(端坐)해 개원(開元) 16년(729) 7월 30일 밤에 도(道)를 이루었다. 또한 각로(閣老: 벼슬이름, 員外라고도 함) 민공(閔公)이 있어 매년 100명의 스님을 공양했는데, 반드시 한자리를 비워놓고 동굴의 스님을 정해 100명을 재웠다. 동굴의 스님이 바로 지장 스님이다. 또한 “스님은 바로 가사(袈裟) 한 벌이 덮을만한 땅을 보시하라고 해, 민공이 허락하자 스님은 펼친 가사를 펼쳤다. 스님이 펼친 가사가 구화산을 모두 덮자 민공은 덮은 만큼 모두 회사했다. 또한 그 아들이 출가하기를 원했는데, 바로 도명(道明)화상이다. 민공도 후에 또한 속진을 벗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비관경 거사의 <구화산화성사기>에 나타나는 연대와 맞지 않는다. 그러나 민공이 땅을 회사했다는 것과 도명 화상 등의 이야기는 민간에 전설로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오대(五代) 이후에 제작된 지장보살과 관련된 회화나 조각상 등에는 신라로부터 데리고 왔다는 흰 개 선청과 민공, 도명 화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아마도 오대 무렵에 형성된 전설이 아닐까 한다.

중국의 지장신앙은 바로 구화산 김지장 스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후대에 출현하는 지장보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회와 민간에서 유행하는 전설 등이 모두 지장 스님과 구화산 지장도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장신앙의 유행은 지장 스님의 수행과 교화에 기인한 것이지만, 또한 비관경 등 거사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안사(安史)의 난 이후에 피폐해진 당조(唐朝)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맞물려 지장보살이 주는 구원의 희망에 민중들이 몰입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실제 당말(唐末), 오대(五代) 혼란한 정치상황에서 실의에 빠진 수많은 사대부들이 구화산 지장도량으로 은거했던 사실은 그 반증이라고 하겠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 정보

724호 |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h4>포교원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하남시 도로가 건물, 바로앞 버스정류장 ● 평수: 약 30평 ● 법당 약 25평, 요사10평 ● 교통 매우 편리, 즉시법회가능 ● 전세 4천만원 ● 시설비 1500만원 <p>010-9411-5302</p>	<h4>포교당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동 ● 2층 50평 ● 대형 재래시장 주변 ● 법당 25평, 방3, 주방, 주차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75만원 ● 시설비 약간(절충가능) ● 지방 이전 관계로 ‘급’ 양도 <p>011-9342-9794</p>	<h4>포교원 (급)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40평 ● 상가: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p>010-2259-6787</p>	<h4>포교원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 목탄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p>010-3163-5014</p>	<h4>팬션같은 암자 토굴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대지 250평, 건물 25평 ● 황토벽돌, 기와지붕, 목욕탕 ● 수세실화장실,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방문 답사 후 결정 ● 매수자가 법당 지을시 법당터 무상보시(스님들 한해서) <p>010-3169-5364</p>	<h4>사찰 (급)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 산신, 후불, 선종, 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p>010-3019-2236</p>	<h4>임법당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말리 ● 평수: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3,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 범당, 공양실, 불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2천만원 <p>010-2204-8375</p>
<h4>수련원 연수원 부지(급)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 포천 성동리 (서울 30분 거리) ● 대지 평수: 약 11,000평 ● 건물: 200평1동, 100평3동 ※ 이전 종교연수원 시설 (기본시설 완비) ● 가액: 16억(절충가능) <p>010-4111-7523</p>	<h4>포교당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양산시 북부동 ● 평수: 86평(법당46평) 방3칸, 공양간 ● 삼존불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보살) ● 전세 35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및 비품대는 ● 상의 후 결정 <p>010-8011-7444</p>	<h4>사찰 (터)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북 영동 시내에서 5분거리 ● 아늑하고 아름다운 바위와 산이 어우러진 영동에 최고의 위치, 상권을 가지고있고 영동을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차량통행이 많으며 사찰 토굴 무엇이든지 할수있는 임주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 평당 85만원, 평수 300평 ● 주변에는 국유림 약 2만여평 ● 사찰임대구합니다, 교환가능합니다 <p>010-9468-4235 010-4046-6637</p>	<h4>포교당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시 달서구 진전동(월배시장앞) ● 대단위 아파트, 2층건물 1.2층 합35평 ● 3층 옥탑방,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p>010-9368-9104</p>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롱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